

AUTHOR 심창섭 (Chang Seop Shim)

TITLE 리베르틴파에 대한 칼빈의 신학적 입장(3)  
(An Evaluation of the Calvin's Position  
on the Libertines Sect (3))

IN 신학지남(Presbyterian Theological Quarterly)  
vol.56 no.2 (Summer, 1989):98-126

## 리베르틴파에 대한 칼빈의 신학적 입장(Ⅲ)

沈 昌 燮

〈역사신학〉

〈목 차〉

I. 서 론	V. 리베르틴의 범신론 교리
II. 리베르틴파의 정의	VI. 기독교론
III. 리베르틴파와 초대교회 이단들	VII. 윤 리
IV. 성경관	VIII. 결 론

### III. 리베르틴파와 초대교회 이단들(2)

#### (2) 靈知主義

칼빈은 18세기 중엽 이후에나 발견된 영지주의자들의 원저작물들을 읽기는 커녕 볼 수조차 없었다. 따라서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칼빈의 지식은 영지주의에 대항한 교부들의 논증서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영지주의 자료들을 연구한 결과, 영지주의자들에 관한 교부들의 저서들이 영지주의 문헌에서 제공한 정보와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이 입증되었다: “비록 영지주의 문헌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는 앞으로 계속해서 오랜시간 동안 이루어지겠지만, 이 문헌들이 이 이단에 대한 교부들의 내용이 지닌 신뢰도를 강화해 주고 있음은 이미 확인되었다.”<sup>91)</sup>

영지주의의 기원과 사상이 매우 복잡미묘하기 때문에 초대교부들의 문헌이나 영지주의자들의 원저작물을 충분히 검토·평가를 하지 않고서는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가르침의 핵심에 이르기란 쉽지가 않다. 이레니우스는 수많은 영지주의 종파 가운데 유일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

91) NCE, p. 524.

는 발렌티우스(Valentius)그룹의 경우에서도 여러개의 다양한 파당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자, 이들 종파들의 일치하지 않는 의견들을 살펴보라. 그들은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취급을 달리하고 있으며, 사물과 이름들에 대해서도 한결같이 서로 불일치하는 의견만을 제시할 뿐이다.”<sup>92)</sup>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영지주의 체계에도 불구하고 초대교부들이 기독교 교리와 관련하여 변호하며 맞섰던 영지주의 입장의 중요한 교리들, 즉 신관, 구원론, 기독교론, 부활과 광신주의 등은 모호하지 않고 분명히 드러나 있다. 더욱이 사상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리스도, 인간, 그리고 우주에 관한 영지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입장이 초대교부들과 칼빈이 자신들의 저서 가운데 설명하고 공박한 내용과 거의 다를 바 없음을 보게될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 A. 영지주의자들과 그 가르침

칼빈은 영지주의자들을 이렇게 소개한다: “이와 거의 같은 시기에 등장한 것이 영지주의자들로서, 그들이 이처럼 불리운 것은 그들 스스로가 보다 신비스러운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sup>93)</sup> 그러면서 칼빈은 영지주의자들의 중요한 가르침을 이원론, 영혼을 하나님의 실체와 동일시함, 영적 광신성 등 세가지로 요약한다.<sup>94)</sup> 여기서 영혼을 하나님의 실체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칼빈이 「반론」 13장에서 16장에 걸쳐 다루고 있는 리베르틴파의 범신론적 결정론과 관련된다. 영지주의의 영적 광신주의는 리베르틴파의 광신적 특성과 유사하다.

이레니우스 역시 문제시하고 있지만, 칼빈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

92) Irenaeus, Haer., 1, 11. 1 (ANF I. 332; MPG VII(1), 559: Videnus nun (et horum inconstantem sententiam, cum sint duo vel tres, quemadmodum de eisdem dicunt, sed et nominibus, et rebus contraria resonant).

93) TAL p. 196 (CO VII, 156: Presque de ce mesme temps, furent aussi les Gnostiques, qui se nommoient ainsi, pour s'assiruer une excellente connoissance par dessus les autres).

94) TAL, p. 196 (CO VII. 157).

는 영지주의의자들의 제 원리 가운데 하나가 그들의 “두 원리론(two principles)”<sup>95)</sup> 교리이다. 그러나 Nag Hammadi의 원저작물들 중 일부는 칼빈과 이레니우스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듯 보인다. 대체적으로 영지주의 저작물들 가운데에는, 특히 발렌티우스주의자들의 자료에서는 이원론 보다는 하나님의 단일성(單一性, the oneness)이 보다 지배적인 주제로 나타난다. Nag Hammadi의 The Tripartite Tractate에 포함된 발렌티우스주의 자료들 중 한 저자는, 전 존재의 기원인 하나님을 하나이신 하나님(one God)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만이 홀로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떠한 신(god)도 필요하지 않으며, 그에게 아버지가 되는 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나지도 않으셨고, 그를 낳은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를 창조한 다른 존재가 없는 까닭에서 이다…… 보다 본래적 의미로, 홀로 하나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 누구도 결코 낳을 수 없는 단일하신 분이신 것이다. 우주에 관하여는, 하나님만이 우주를 낳으시고 창조하신 유일한 분이시다.<sup>96)</sup>

그러므로 발렌티우스의 본래 가르침 가운데 그 중심은 하나님의 단일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곳에서도 반복하여 서술되고 있다. 예컨대, A Valentinian Expositon 같은 저술 속에서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즉,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며) 모나드(Monad) 안에 거주하시는(이루 형용할 수 없으신 분인) 아버지……(그 분만이 홀로) 침묵 가운데 거주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 안에 모든 거주지를 갖추고 계셨다.”<sup>97)</sup> 이와 동일한 사상이 Interpretation of knowledge에서는 보다 상세하게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그의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아버지를 크게 부르지 말라. 너의 아버지는 한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분이여.”<sup>98)</sup>

95) TAL p.196 (CO VI. 157: deux principes); Irenaeus, Haer., 2.1-3 (ANF I. 359-362; MPG VI(1) 709-718).

96) The Tripartite Tractate, 51.24-52.5, NHL p.55.

97) A Valentinian Exposition, 22.15-25, NHL p.436.

98) The Interpretation of knowledge, 9.29, NHL p.430.

위의 인용문들을 고찰해 본 결과, 그렇다면 발렌티우스주의자들의 신관에 대한 이레니우스의 평가가 틀렸다는 말인가? 이레니우스는 결코 발렌티우스주의자들의 하나님이 유일신론적 하나님이 아니라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오히려, 발렌티우스주의자들이 자신의 실제 모습을 베일에 감추고 있다고 단언한다. 이레니우스는 발렌티우스주의자들의 이중적 모습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비난한다:

그와 같은 자들은 외적으로 양의 모습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쓰는 언어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우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내적으로는 그들은 이리들과 같은 자들이다. 그들의 교리는 실로 살인적인 요소가 담겨 있고 내심으로는 여러 신들을 상상하여 그리며 짐짓 많은 교부들을 흉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이끌어 내려서 여러 방면으로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sup>99)</sup>

발렌티우스주의자들의 저서들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이레니우스가 행한 비난들이 분명한 근거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발렌티우스주의자들도 모든 만물이 유일하신 지존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주장하지만, 또한 이 유일의 지존하신 하나님 아래 많은 신들을 포함시킨 계급제도가 있음도 동의한다. 발렌티우스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신관이 유일신론적 체계라고 주장하지만, 이 유일한 하나님에게서 일단의 영적 존재들(aeons)를 고안해 내어 그들에게 신성을 부여하였다. 이레니우스가 것처럼 혼란스러운 면과 절대적인 이단의 면모를 발견한 발렌티우스주의자들의 신관에서는 이러한 이신론적(deistic) 존재 체계가 엿보인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신성시된 일단의 영적 존재들이 존재한다는 사상은, 오로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한분만

99) Haer., 3,16,8 (ANF I. 443; MPG VI(1), 927: qui a foris quidem oves, (per eam enim quam hasent extrinsecus loquelam, similes nobis apparent, eadem nobiscum loquentes) intrinsecus vero lupi. Sententia enim eorum homicidialis, does quidem plures configens, et patres multos simulans; comminuens autem et per multa dividens Filium Dei).

이 존재하시며 그분 외에는 어떠한 다른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통 유일신론과는 판이한 것이다. 게다가, 발렌티우스주의자들은 지존의 하나님(the supreme God)을 신성시된 열등한 존재들과 구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창조주 또는 조물주와도 구별한다. 이 창조주는 마르시온주의에서 처럼 모든 열등한 신을 말한다. 이처럼 신들의 다원적 체계가 이레니우스에게는 결코 용납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설사 다른 모든 신들(gods) 위에 군림하는 지존하신 유일의 하나님이 바로 보이지 않고 무한하시며 근원자이신 하나님이란 점에서 자신들의 신 개념이 유일신론적이라고 발렌티우스자들이 주장한다 하더라도,<sup>100)</sup> 이 원론적이고도 다원적 신개념이 그들의 우주체계 속에 나타나 있음은 논의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이처럼 다양한 체계들을 함께 보유하면서 여전히 자신들의 신관은 유일신론적 체계라고 주장하는 발렌티우스주의자들에게 대해서, 이레니우스는 그들이 집짓 가장을 꾸며 자신들의 실재 교리를 감추고 있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정말이지, (하나님의) 단일성을 인정하는 것은 말뿐이고, (실제로) 그들의 의견과 이해하고 있는 것은 단일성(교리와)은 전혀 동떨어진 다양한 신적들을 생각에 품고 있을 따름이다…….”<sup>101)</sup>

여러가지 영지주의 저작물을 살펴보면, 영지주의의 신개념이 이원론과 다신론의 혼합된 형태라는 이레니우스의 비난을 입증해주고 있다. On the Origin of the World 라는 글 속에서, 그 저자는 실제로 지존하신 하나님의 전제가 희박함을 드러내면서 수 많은 신적 존재자들(divine entities) 사이에 긴장감이 놓여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발렌티우스주의자들이 지고의 하나님(the highest God)과 동일시하는 “제일의 하나님”(the first God)이 다른 신들과 천사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만이 홀로 신(god)이고, 나 이외에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자, 그러나 다른 신적 존

100) The Tripartite Tractate, 51. 1ff., NHL pp. 66ff.

101) Haer, 4, 33, 3(ANF I, 507; MPG VII(1), 1072: Linguas itaque eorum videlicet solas in unitatem cessisse; sententiam vero eorum et sensum quae profunde sunt scrutari, decidentum ab unitate, incidere in multiforme Dei iudicium……).

재자들은 이처럼 방만한 제일의 아버지께 대해 이처럼 응수한다. “그러나 그가 이처럼 말했다면, (썩지 않는) 불멸의 모든 존재자들에게 죄를 범하고 만 것이라구…… 더구나 Pistis가 최고 지배자의 불경스러운 행동을 목격하고는 나타나지도 않은 채 분노하여 이르기를, ‘사마엘, 이 무지한 신아? 당신은 죄를 범한거야’, ‘당신 목전에 불멸한 인간이 존재하고 있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sup>102)</sup>

이와 유사한 대화를 The Hypostasis of the Archons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며 (나 이외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가 말했다면 전체(the Entirety)에 대해서 죄를 범하고만 것이다. 따라서 이 말이 비록 청렴결백한 말이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사마엘, 이 무지한 신아! 당신은 무언가 혼동하고 있군’이란 정반대의 응답만이 있을 뿐이다.”<sup>103)</sup>

또 다른 본문에서도, 유일한 지존자만이 존재하고 있음을 광적으로 고집하는 제일의 하나님에 대해 한 신이 나무라고 있다:

그의 광기처럼 미친 행동 속에는 불경건스러움이 엿보인다. 그가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고,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는 그가 자신의 능력도, 또한 자기가 어느 곳으로부터 왔는지조차 모르는 까닭의 소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주변에 있는 피조물들과, 그로부터 나와 그를 에워싸고 있는 수 많은 천사들을 보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처럼 말함으로써, 오히려 또 다른 신(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천사들에게 반증한 셈이 되었다. 만약 실제로 또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가 하등의 질투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sup>104)</sup>

히폴리투스과 티롤리안 같은 초대 교부들과 더불어 이레니우스가 영지주의의 이원론을 논박하고자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은 것

102) On the Origin of the World. 103, 10—20, NHL. p. 165.

103) The Hypostasis of the Archons, 86, 30—87. 4. NHL p. 153.

104) The Apocriphon of John, 11, 18—13. 13, NHL pp. 105—106.

은, 바로 이와 같은 거짓된 유일신론 주장에 대항하기 위해서였다.<sup>105)</sup> 이레니우스의 저작물들과 영지주의자들 간의 완전한 일치는 바로 영지주의 안에 나타난 다원론적 신관이 단순히 영지주의가 지역적으로 널리 확산됨으로써 빚어진 결과일 뿐만이 아니라,<sup>106)</sup> 영지주의가 조로아스터교, 바빌론 종교, 헬라철학,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심지어 불교 등과 같은 이질적 사상들과 혼합된 사실에서도 연유했음을 보여준다.<sup>107)</sup> 그러한 영지주의는 혼합주의이다. Quispel의 경우 영지주의가 혼합시킨 수 많은 사상과 영향력에 대해 언급하면서, “영지주의야말로 가히 세계 종교라고 불리울만 하다”<sup>108)</sup>고 진술하고 있다.

영지주의 가운데 다양한 사상체계가 있음으로 해서 신들이 각양각색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영지주의의 제형태 속에 여전히 근간으로 남아 있는 한가지 사상은 역시 이원론이라 할 수 있다.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이원론이 의미하는 바는 의견만이 무성할 뿐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sup>109)</sup> 그러나 기본적으로 영지주의에서는 “영적물질(the spiritualized material)과 세속적 물질(the earthbound material)이라는 두개의 존재자 사이의 절대적 이원론”<sup>110)</sup>을 인정하고 있다. 영지주의는 영적 물질을 “물질 존재의 천상적 유형”으로 이해하여 선(善)한 것으로 보고, 세속적 물질을 악(惡)한 것으로 여긴다. 이와 같이 선과 악이라는 두개의 실재(reality) 영역 사이의 철저한 구분이 이원론의 근간을 이룬다. 이러한 이원론은 하나님, 우주, 그리스도, 인간,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영지주의의 교의라고 할 수 있다.

영지주의 신관에서는 완전하고도 헤아릴 수 없는 지존하신 하나님과 불완전하며 보다 열등한 조물주 사이에 언제나 긴장감이 감돌며 첨예한 틈새가 나타난다.<sup>111)</sup> 지존자이신 선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조

105) Kelly, 1978, p.110.

106) Grant, 1959, p.6; Grant, 1961, p.16.

107) Van Groningen, 1967, pp.6~18.

108) In Van Vnnik, 1960, p.23.

109) Jonas, 1958, pp.42ff.

110) Van Groningen, p.178.

111) Haardt, 1971, p.4-5.

물주(the Demiurge)는 영지주의에서 악한 것으로 간주한 세계의 창조와 관련된다. 그러므로 영지주의에서 조물주는 악의 창시자이다. 따라서 영지주의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살인사건을 조물주의 탓으로 돌린다.<sup>112)</sup> The Apocryphon of John의 저자도 역시 조물주를 “어두움의 유산”(the abortion of darkness)<sup>113)</sup>이라 부른다. 그와 같이 지고·지존하신 하나님과 열등·사악한 하나님 간의 뚜렷한 구분을 통해서 영지주의 신관 안에는 신적 존재들이 두가지 상이한 실재로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지주의 우주관에서도 이원론을 내포하고 있다.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우주에는 두개의 영역이 있다. 그중 하나는 빛의 영역(pleroma)을 이루는 초영적 영역(the supra-spiritual realm)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현상 세계의 반영적 영역(antispiritual realm)을 말한다.<sup>114)</sup>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는 우주가 단순히 하늘, 땅, 그리고 바다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영지주의에서는 우주 너머에 “하나의 완전한 초월적 지상세계”(a complete supramundane world)가 존재함을 믿는다.<sup>115)</sup> 이처럼 현상세계와 초월적 지상세계 사이의 구분에서도 분명히 이원론을 적용하고 있다. 영지주의 우주론에서 보다 이원론 사상이 분명히 나타나는 곳은 창조관에서 엿볼 수 있다. 영지주의에서 현상세계의 창조는 조물주와 타락한 소피아(Sophia)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처럼 다양한 신적 존재들(aeons)에게서도 사악한 현상세계와 참된 이상세계로 뚜렷이 구분되는 것이다.<sup>116)</sup> 영지주의의 우주론에 나타난 이원론은 두개의 상이한 우주영역이 실재하는데서 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창조 원리 속에서도 드러난다.

영지주의의 이원론은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이해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이분법적 세계관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영지

112) A Valentinian Expositim, 38.24-26, NHL p.440.

113) 46.10, in Haardt, p.5.

114) Wilson, 1958, pp.202-207.

115) Wilson, p.202.

116) Wilson, p.203.

주의에서는 그리스도 몸의 실체가 물질 또는 육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육체의 부활은 영지주의자들에 의해 부인된다. 따라서 영지주의의 그리스도는 가현적(假顯的) 그리스도이다. Nag Hammadi의 많은 본문 가운데에서도 영지주의의 이러한 견해를 입증해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Acts of John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다: “형제들이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영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금 저는 그분을 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그분의 물질적인 견고한 몸을 대할 수 있었읍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다른 기회에 그분을 대하게 되었을 때, 그분의 실체는 비물질적이며 비육체적이었습니다. ……마치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sup>117)</sup>

영지주의자들은 실제로 과거에 발생했었던 유일한 사건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부하고 단순한 영적 환상으로 상징화시켜 버린다. 영지주의자들에게는 부활이라는 실제 사건이 아무런 중요성도 없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현실 가운데 그리스도의 현존을 영적으로 경험한다는 사실만이 중요할 뿐이다. 육체적 부활사상은 영지주의자들에게 사실 조롱거리 밖에 되지 못한다.<sup>118)</sup> 영지주의의 기독론은 분명히 선과 악, 영과 물질이라는 그들의 이원론적 개념에서 시작된 것이다.

영지주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영, 혼, 육이라는 삼분설적 입장을 취한다.<sup>119)</sup> 그러나 이러한 삼분설적 배후에서도 영지주의는 육과 혼으로부터 영을 구분짓는다. 영은 인간과 세상 속에 갇힌 “빛의 이슬”(light-dew), 혹은 “빛의 섬광”(light-spark)으로 간주된다. 육과 혼은 “빛에 속하기 보다는 어두움”<sup>120)</sup>에 속한다. 이처럼 인간의 이분적 구분(영, 몸/육)은 서로 정반대의 대조를 이룬다. 전자는 빛의 영역에 처해있고, 후자는 어두움에 거하는 것이다.

이원론은 지식(gnosis)에 관한 영지주의 개념에서도 드러난다. 이것은 앞서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서론부분에서 칼빈이 영지주의의 기

본적 교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영지주의자들에 따르면, 인간이 이 세상의 악의 세력으로 부터 자신을 구원시켜 절대적 완전으로 회귀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유일한 수단이 지식(gnosis), 또는 특별한 지식(special knowledge)이다. 참된 구원은 오직 이 지식으로써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sup>121)</sup> 이 지식은 세계와 자아를 이해하고, 또한 완전한 세계에 이르기 위해 세상에 단연된 악을 정복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구원은 바로, 이원론적 세계의 본질을 통찰함으로써 악한 물질세계로부터 영적인 완전세계로 옮겨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이 지식으로써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영지주의의 세계관, 신관, 그리스도관, 인간관, 그리고 구원관 안에 이원론이 단연한 사실로 인해서, 칼빈은 영지주의를 이단 종파로 규정하면서 그 기본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영지주의는 두개의 원리를 축(軸)으로, 인간의 육신 안에 순수한 영혼들은 선하신 하나님 본성으로 돌아가고 반면에 세상의 더러움으로 오염된 영혼들은 악한 본성으로 되돌아 간다고 주장한다.”<sup>122)</sup>

칼빈은 영지주의자들이 “영혼은 하나님의 실체”<sup>123)</sup>임을 믿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지주의의 범신론적 특징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칼빈은 또한 이단 케르돈에게서도 범신론적 색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모든 만물은 그의 실체를 공동적으로 분유(分有)하였다.”<sup>124)</sup>

영지주의의 우주론과 인간론의 전체 구조는 범신론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영지주의의 우주론에 의하면, 하나님의 창조행위는 창조가 아니라 출산(procreation)이다. 신적 존재들(aeons)과 다른 모든 천상의 영적인 신들은 “유출”(emanation)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다. 심지어 세상조차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 조물주 소피아(Sophia)로부터 유출된 것이다. 세상은 소피아가 “자기로부터 한 존재가 형성

117) In Pagels, 1981, p. 88.

118) Pagels, pp. 4-32.

119) Haardt, p. 6; Jonas, p. 44.

120) Haardt, p. 6.

121) Pelikan, Vol. I. p. 82.

122) TAL p. 196(CO VI, 157:…faisans deux principes, l'un bon et l'autre mauvais; disans que les ames qui se sont gardées pures au corps humain, s'en retournent à la nature du bon Dieu: et cells qui se sont souillées des immunditez du monde, au mauvais).

123) TAL p. 196(CO VI, 156-157:…l'ame estre de la substance de Dieu)

되개꿈<sup>125)</sup> 자기 자신을 확장함으로써 창조된 것이다.

천상 존재들의 창조시 유출과정에 대해서는 The Tripartite Tractate에서 설명되고 있다. 존재하는 천상의 어떤 존재자도 서로 각기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가령, “아버지께서 자신이 요구하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확장시키듯이, 그들의 생성은 마치 확장과정과 유사하다. 그 결과 아버지로부터 나온 자들은 역시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sup>126)</sup> 천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들은 서로로부터 유출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The Tractate에서는 그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한다:

마치 오늘날에는 aeon 이 비록 단일한 것이기는 하지만, 여러 세대로 나누어지고, 각 세대는 여러 해로 나누어지고, 각 해는 계절로 분화되고, 각 계절이 여러 달로, 나누어지며, 각 달은 여러 날로, 각 날은 여러 시간으로, 각 시간은 여러 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진리라는 aeon 역시, 그것이 비록 통일성과 다양성을 띠고 있지만, 유비적 방법에 의해서 .....각기 그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크고 작은 명칭들을 부여받는다. 마치 봄은 그 자체가 봄이지만 가지들과 열매달린 나무들로 흐르듯이 말이다.<sup>127)</sup>

지존의 하나님은 셀 수도 불 수도 없는 절대적인 초월적 존재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모든 천상의 존재들은 이 지존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일련의 유출에 의해서 각기 서로 연결되어 나타난다. 이레니우스는 정통 신앙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 이단적 창조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러한 Eon 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연결’을 매개로 유출되었다.”<sup>128)</sup> 이러한 유출과정 때문에 영지주의

124) TAL p.195(CO VII. 156:...tout...estre de la propre substance).

125) Foerster, 1972, p.103.

126) The Tripartite Tractate 73, 24—29, NHL p.66.

127) The Tripartite Tractate, 73, 29—74, 19, p.67.

128) Haer., 1, 1, 2(ANF I. 316; MPG VII(1), 450: Hos autem Aeon in gloriam Patris emissos...emississe emissiones in conjugatione).

사상 가운데에는 개별적인 구분이란 있을 수 없다. 모든 존재들은 유출과정을 통해서 서로 연결된다. 어떠한 것도 다른 존재자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동일성을 맺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모든 천상의 존재들은 그 유출과정의 출처가 하나님인 까닭에 결과적으로 신격화 된다: “aeon은 신적 실체로부터 유출되며” 그 신과 영원토록 동등하게 존재한다.”<sup>129)</sup> 따라서 영지주의의 유출, 혹은 출산 개념은 모든 존재들 상호 간에 본질을 분유(分有)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이와 동일한 범신론 사상이 영지주의 인간관에서도 나타난다. 이 범신론에 의하면, 인간 역시 그 내부에 하나님 자체로부터 유래한 신적인 섬광을 가지고 있다.<sup>130)</sup> 영지주의자들은 이 신적 섬광을,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여 결국에는 신(god)이 되개꿈 만들어 주는 신적, 능력의 확산(extension of divine power)으로 이해한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러한 인간의 신적 가능성들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The Gospel of Thomas 같은 책 속에서 찾고 있다: “예수의 제자들이 묻자와 가르되 ‘우리에게 당신이 계신 곳을 보여 주소서.....’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귀 있는 자마다 들을찌어다.’ 빛의 사람 안에는 빛이 있으니 이것이 온 세상을 비추었느니라. 이것이 비추지 아니면 이는 곧 어둠이라’ 하였더라”<sup>131)</sup> 이러한 인간 안의 내적 가능성을 나타내 주는 다른 구절들은 같은 복음서에서 계속 나타난다: “만일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열매 맺으면 너희가 열매 맺는 것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요, 만일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열매 맺지 못하면 너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으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sup>132)</sup>

따라서 영지주의의 구원론에 의하면, 인간의 구원은 자신의 신앙이나, 혹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의 구원은 하나님의 실체가 부여한 “비밀지식의 이해” 또는 “내부의 빛”에 달려 있다. 이러한 “지식”(gnosis) 또는 “신적인 섬광”을 통해 인간은

129) Pelikan, Vol. I, p.85.

130) NCE, p.525.

131) 38.4—10, NHL p.121.

132) 45.30—33, NHL p.234.

빛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The Gospel of Truth 에서는 이와 같이 설명한다: “.....사람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서, 자기 자신의 고유한 지식을 받으며 그것을 자신에게로 끌어 들인다. ....이러한 식으로 지식을 소유하는 자마다 자기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지 알고 있다.”<sup>133)</sup> 그러므로 영지주의의 구원은 “신의 하강과 재상승 과정”<sup>134)</sup> 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영혼의 윤회설과 거의 흡사하다.

이처럼 인간 내부의 신적 섬광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상호교제의 근거로서 암시해 주는 내용이 The Gospel of Philip 에서도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러나 지금은 인간이) 신(god)을 창조하였다. 인간이 신들을 만들고 그들의 피조물에게 경배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의 관례이다. 아마도 그 신들이 인간을 경배하는 것도 어물리지 않을까!<sup>135)</sup>

내가 성령을 보았으면 성령이 될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면 그리스도가 될 것이며, 내가 (아버지)를 보았다면 너도 아버지가 될 것이다.<sup>136)</sup>

이 두 구절에서는 영지주의 범신론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취급되고 있다. 인간 내부의 신적 빛, 또는 인간의 지식을 통해 인간은 구원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와 하나님도 되는 것이다. 영지주의 범신론에서는 인간 자체가 신적 생명과 신의 계시를 나타내 준다.<sup>137)</sup> 모든 피조물들에게 신성을 부여한 영지주의의 신관, 즉 영지주의 범신론은 앞으로 본 논문에서 고찰하게 될 리베르틴파의 범신

133) 21. 11—22. 15, NHL p. 40.

134) NCE, p. 526.

135) 71. 35—72. 4, NHL, p. 143.

136) 61. 29—35, NHL, p. 137.

137) Pagels, p. 147.

론 개념과 일치한다.

## B. 영지주의의 광신성

이단종파들에게서 반복하여 되풀이 되는 경향 가운데, 무절제한 영성을 그 한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베드로서와 유다서에서 이미 지적했던 바이지만, 칼빈도 리베르틴파를 가리켜 “지상에서 가장 높이 떠 있는 구름 속에 있는 자들”이라고 묘사할때서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영적 무절제, 또는 광신성은 영지주의자들이 행하는 주술(babbling) 형식에서도 엿볼 수 있다고 칼빈은 말한다: “.....그들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허튼소리를 가지고 신령한 주술로 사용한다.”<sup>138)</sup>

히폴리투스에 따르면, 영지주의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무당 시몬은, 인간들 각 사람 안에는 우주의 근원이 되는 무한한 힘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sup>139)</sup> 이처럼 무한히 잠재된 힘을 실현시킬 수 있을 때, 영적으로 상위 영역에 속하는, 소위 지구 주변의 제 8, 제 9 천체층까지 여행할 수 있다고 영지주의자들은 믿고 있다. 이때 그들은 심비한 지식(gnosis)에 의해 이끌리어 “제 8, 제 9 층의 엑스타시 경험”<sup>140)</sup>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하는 영지주의자들은 엑스타시 상태에 빠지게 되어 이렇게 외치게 된다.

.....나는 지금 보고 있노라! 나는 지금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깊이를 보고 있도다. 어떻게 이것을 내게 말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우주(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나는 (정신이) 영

138) TAL, p. 196(CO VI. 157;...ilz avoyent un gergon obscur pour gasouiller des choses spirtuelles, sans qu'on y entendist note).

139) Hippolytus, Ref., 6.9(ANFV 77—78); Origen, Con. Haer., 6.9(MPG XVI(3), 3209; Infinitam autem esse potestatem Simon appellat universorum principium his verbis usus: Hic liber revelationis vocis et nominis ex intelligentia magnae protestatis infintae. Quapropter erit obsignatus; absconditus, velatus, repositus in habitaculo, ubi radix universorum fundata est).

140) Robinson, NHL, p. 292.



혼을 움직이는 바로 그 정신을 지금 보고 있도다! 순수망자으로 부터 나를 움직이는 그것을 나는 보고 있도다. 내가 나에게 힘을 주었구나!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보고 있구나! 나는 말하고 싶도다! 두려움이 나를 제지하는구나. 모든 힘들 위에 있는 힘의 근원, 결코 시작함이 없는 바로 그것을 나는 찾았도다! 내가 지금 생명이 흘러 넘치는 한 샘을 보고 있구나,…… 드디어 나는 찾았도다!<sup>141)</sup>

이러한 신비스러운 신의 영역 속으로 들어간 여행자들은 엑스타시 상태 속에서 너무 기쁜 나머지 노래를 부른다. “Zoxathazo a oō ee oōo eee oōōō ee oōōōōō oōōōōō oōōōōō uuuuuuu oōōōōōōōōōōōōōōōō oō zozazoth”<sup>142)</sup> 이같이 칼빈이 인용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의 허튼 소리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쓸데 없는 외침에 지나지 않음이 틀림 없다.

칼빈은 계속해서 다양한 이단종파들의 이러한 영적·엑스타시적 표출을 비난하면서 이에 대한 혐오심까지 나타낸다. 이러한 종류의 영성을 강조하게 됨에 따라 이성을 거부하고 반율법주의적 행동과 결부되는 자유의 영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러한 반율법주의적 행동은, “율법과 이성은 언급한 바대로 그것들이 듣기를 원치 않는 일종의 속박을 불러 일으킨다”<sup>143)</sup>는 리베르틴의 견해에서도 입증해 주고 있다. 영적 경험에 대한 지나친 강조, 특히 그것이 성경과는 전혀 동떨어진 영(Spirit)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반론」 9장, 10 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것은 유독 칼빈을 당황케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 (3) 마니교

칼빈은 이제껏 마르시온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교의를 가략히 다루면서 리베르틴파의 핵심교의와 관련지어 언급하였

141) The Discourse on the Eight and Nineth, 57, 31—58, 22, NHL, p. 295.

142) The Discourse on the Eight and Nineth, 56, 17—22, NHL, p. 294.

143) TAL, pp. 193—194(CO VII, 156: Car cela leur est une serritude, de lagnelle ilz ne veulent ouyr parler).

다. 이제 칼빈은 논의의 방향을 마니교에게로 돌리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마니교는 아주 초창기부터 이미 다른 이단종파 가운데 명성을 날리며 수많은 신도들을 확보하였으며, 가장 장기간 동안 존속하면서 도처로부터 사상들을 끌어들이 너무나도 풍부한 거짓 교리들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장하는 바를 드러내 줄 수 있는 최적의 실례로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다루어야만 할 이단종파라 할 수 있다.”<sup>144)</sup> 이런 까닭에 칼빈은 마니교가 모든 이단종파들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전형으로 취급한다.

칼빈이 언급한 바 대로, 사실 마니교는 이단종파들 가운데 가장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 이단종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단 자체는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됐을 뿐만이 아니라, 중세시대에 도처에서 발생한 모든 이단운동들 특히 그 이단운동들 가운데서도 이원론적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에서는 이단의 호칭, 혹은 “마니교도”라는 명칭이 모든 이단운동을 대표하는 적절한 명칭으로 사용되었다.<sup>145)</sup> 마니교가 각 도처에서 사상들을 끌어들이었으며, 그 가르침들은 고대 세계의 수많은 이방종교 및 문화를 수용하여 융합시켰다는 것, 역시 학자들간에 동의하는 사실이다. 이 이단종파는 지역적으로 전 로마제국은 물론, 그 인근지역들과 심지어 중국에 이르기까지 널리 유포되었다.

이 마니교의 핵심적 특징으로는 칼빈이 지적하고 있듯이, “그들은 구약성경을 부인하고 율법과 선지자들을 조롱했다.”<sup>146)</sup>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대체로 마르시온주의자들이 구약성

144) TAL, p. 196(CO VII, 157: Mais pource que la secte des Manichiens a esté iadis renommée entre les autres, d'autant qu'elle a eu plus grande multitud de sectateurs, et a esté de plus longue durée, et aussi qu'elle a ramassé plusieurs pieces de tous costez, á fin d'estre plus copieuse et abondante en faulses doctrines, il nous la faudra prendre singulierement pour miroir, á fin de monstrier ce que nous pretendons).

145) Runciman, 1947, p. 17.

146) TAL, p. 196(CO VII, 157: Iceux donc reiectans le vieil Testament et se moquans de la Loy et des Prophetes).

경을 거부함으로써 성경의 통일성을 파괴한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앞서 두 이단종파를 다루는데 있어서 전혀 구약성경의 거부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마도 칼빈이 마니교를 구약성경의 거부사실과 관련짓고 있는 연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마니교에 대한 칼빈의 지식은 마니교도들의 성경관에 대한 어거스틴의 설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칼빈이 어거스틴의 설명을 받아들여 마니교를 공격할 때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sup>147)</sup> 특별히 마니교도들의 성경관이 칼빈의 관심을 끄는 또 다른 이유로는 아마도 다른 이단들과는 달리 마니교도들이 정통기독교 성경과는 다른 그들 나름대로의 고유한 경경들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들 수 있을 것이다.<sup>148)</sup> 칼빈이 이해한 마니교도들의 그릇된 성경관은 어거스틴의 Reply to Faustus the Manichaeen에서 뒷받침되고 있다. Faustus는 어거스틴과 동시대 인물로 “정통기독교에 대해 가장 예리하고도 방종스런 대적자였다.”<sup>149)</sup> 그는 족장들과 모세, 그리고 선지자들을 포함하여 “구약성경의 전체체계”를 공공연히 비난했다고 어거스틴은 기록하고 있다. 심지어 그는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몸에서 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토대로 하여, 가령 복음서들의 족보기사 등과 같은 신약성경의 일부까지도 공공연히 공격한다. 신약성경에 대한 Faustus의 개념 속에는 그가 생각하기에 복음이라고 일컫기에 적절한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건은 부인되고 오직 그의 가르침만을 인정하였다. 의견상으로 볼 때, Faustus가 복음을 인정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용어에 준해서만이 받아들이고 있다: “내가 복음을 믿는다구? 물론 믿지,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내가 복음의 진리를 시인하는가?”

147) Inst., I. 7,3, pp.76—77(CO II. 57); II. 11.3, p.452(CO II. 331); II. 13.1, pp.474—475(CO II, 347); IV. 14.26, pp.1302—1303(CO II. 961); etc.

148) NPNF, IV. Pref., p.34.

149) NPNF, IV.155.

물론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복음으로 이해한다.”<sup>150)</sup> 칼빈은 마니교가 전체적으로 신약성경의 복음서들에 대해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마니교도들은 신약성경의 이곳저곳에서 자기들의 사상과 일치하는 것만을 인정하고, 자기들의 견해와 반대되거나 아니면 기본상하게 하는 것이라면 어느 것이라도 거부해 버린다.”<sup>151)</sup> 칼빈을 가장 자극시켰던 것이 바로 마니교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인정한 사실이였으며, 이 때문에 칼빈은 전체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궁극적인 근거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그토록 강조했던 것이다.

마니교도들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에 너무나도 뚜렷한 차이를 엿볼 수 있다는 연유로 해서 성경 전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점의 원인은 이 두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견해에서 기인된다. 마니교도들은 신·구약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전혀 상이한 분으로 이해하였다. 그들은 구약성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부인한다. 족장들의 하나님은 유한한 존재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sup>152)</sup> 실제로 그들은 구약성경의 하나님은 악하며 잔인한 분이라고 믿었다.<sup>153)</sup> 칼빈의 설명대로, 마니교도들은 “구약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잔인하며 지나칠 정도로 모지신 분이라고 비난하였다.”<sup>154)</sup> 오로지 신약성경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었다. 어거스틴은 이러한 마니교도들의 주장이 지닌 오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멸망하게 될 진노의 그릇들에게 자기의 분노를 나타내어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자비의 그릇들에게는 자신의 부요함

150) NPNF, IV.156(CSEL, XXL. 253: Accipis euangelium? et maxime proinde ergo et natuon accipis Christum? non ita est .....scias me, ut dixi, accipere euangelium, id est praedicationem Christi).

151) TAL, pp.196—197(CO VII. 157: Du nouveau Testament, ilz en prenoient ce qui leur venoit à propos ça et là retrenchant tout ce qui ne leur plaisoit point, ou estoit contraire á leur opinion).

152) NPNF, IV. 319—320(CSEL XXL. 725).

153) NPNF, IV.46.

154) TAL, p.196(CO VII, p.57:.....accusoyent le Dieu, qui est la monstré, de cruauté et trop excessive rigueur).

을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님은 존재한다고는 분명히 말할 수 없을 것이다.”<sup>155)</sup>

마니교도들이 구약성경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히 그들은 구약성경 전부를 거부하게 되었다. 그들은 율법과 복음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성경에 대한 정통적 승인을 비난하였다. 구약성경을 신약성경과 같은 수준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율법과 의식(儀式) 및 도덕적 교훈을 부인하고 선지자들의 생애와 예언들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다.<sup>156)</sup> 따라서 마니교도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성경의 예언들을 부인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육체적 인간일 수 없다는 사실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sup>157)</sup>

이러한 마니교도들의 그릇된 성경관 뿐만 아니라, 마니교도들의 또 다른 근본적인 원리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언급한 초대교회 이단들에게서 공통적인 현상인 이원론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마니교도들의 신관, 그리스도관, 세계관, 그리고 인간관 등은 그들의 이원론적 견해에 따른 것이다. 마니교도들은 모든 만물들을 그들의 두가지 원리론이라 할 수 있는, 빛(light)과 어둠(암흑, darkness)에 따라 이해한다. 모든 만물은 그 시작부터 선(善)과 악(惡)이라는 두 영역 속으로 나누어 존재로 본다. 이미 마니교도들의 신관에서 인식했던 이러한 이원론을 칼빈은 그들의 인간관에서 설명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마니교도들은 인간 안에도 두개의 영혼이 있다고 단정짓는다. 그들이 말하는 바, 그 중 한 영혼은 선하신 참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열등한 사물들에 의해 오염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영혼이 원래의 지위로 되돌아갈 때까지 정화되기를 바란다. 다른 한 영혼에 대해서는, 그 영혼이 울

155) NPNF, IV. 265(CSEL, XXV. 569: certe hic nullo modo dici potest alium deum esse, qui ostendit iram et demonstrat potentiam suam in uasis, qual perfecta sunt ad perditionem, et alium, qui ostendit diuitias in uasis misericordiae).

156) NPNF, IV. 167(CSEL, XXV. 268); IV. 22. 1—5, pp. 272—274(CSEL, XXV. 591—595); IV. 33. 1—3, pp. 340—342(CSEL, XXV. 784—789).

157) NPNF, IV. 177(CSEL, XXV. 313—314).

바르게 고쳐질 수 없으며 오히려 그 영혼이 속해 있는 어둠의 영역으로 영원토록 되돌아 갈 뿐이라고 마니교도들은 말한다.<sup>158)</sup>

위의 진술에서 볼 수 있듯이, 칼빈은 마니교도들의 인간존재에 대한 이원론적 견해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마찬가지로 이원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리스도론과 창조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아마도 칼빈은 이 사항들이 마르시온주의자들과 영지주의의 교리를 요약하는 가운데 언급되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배제할 듯 보인다. 칼빈에게는 동일한 주제를 반복하는 대신에 각 이단종파들에게서 차후에 리베르틴파를 취급할시 필요적절한 새로운 요소들만을 지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초대교회 이단들과 리베르틴파 사이에 어떠한 교리적 유사점들이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초대교회 이단들로부터 시작해서 중세시대의 이단들을 거쳐 리베르틴파에 이르는 동안 실제적으로는 어떠한 역사적 연속성이 존재하느냐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세기간 동안의 이단종파 운동들은 초대교회 이단들과 리베르틴파 사이에 연결된 매개교리가 놓여 있음을 입증해야만 한다. 마니교가 초대교회시대와 중세시대의 대표적인 이단종파임을 고려해 볼 때, 마니교는 중세시대 이단들 가운데 동일한 형태내지는 다른 형태로 분명히 존속했음을 나타내 준다.

#### A. 마니교와 중세시대 이단들

앞서서는, 마르시온주의와 영지주의의 가르침들이 마니교 속으로 흡수된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중세시대 전체를 역사적으로 고찰해

158) TAL, p.197(CO VI. 157: Semblablement) ilz constituoyent deux ames on l'homme: l'une venante du bon Dieu, laquelle ilz disoyent estre souillée par ces choses inferieures, et pourtant qu'il convenoit la purifier, iusques à ce que par degrez elle revint à son origine premiere. Touchant de l'autre. ilz disoyent qu'elle ne se pouvoit corriger. mais qu'elle s'en retourne tousiours au commencement des tenebres, dont elle est).

보면, 예컨대, 두 원리론(two principles)과 두 신론(two gods)의 이원론적 개념, 가현설적 그리스도론, 그리고 구약성경에 대한 부인 등과 같은 마니교도들의 가르침들이 중세의 이단들 속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sup>159)</sup> 마니교도들의 교리는 가령, 바울주의자들(Paulicians), 보고밀파(Bogomils), 파타린파(Patarenos), 카타리파(Cathars), 알바넨시안파(Albanenses), 알비젠시안파(Albigenses) 등과 같은 중세 이단 그룹들 속에 나타난다. 앞서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실제로 마니교도라는 용어는 이상에서 열거한 이단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단종파들까지도 총망라한 용어로서 이따금 사용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교리는 중세 이단들의 문헌과 로마카톨릭 종교회의 칙령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가 있다.

바울주의자들(the Paulicians)의 역사 및 신앙에 대해서는 그들의 수도라 할 수 있는 테프리스(Teprice)의 한 사절(使節)인 시실리의 베드로(Peter of Cisily)에 의해 자세히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sup>160)</sup> 비록 그들의 교리가 그 적대자들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된 까닭으로 상당부분이 추측의 범주에 들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역사가들에 의해 신뢰할만한 사실로써 별이의 없이 사용되고 있다.<sup>161)</sup> 이 기록에 따르면, 바울주의자들은 신앙고백으로 6개의 교리를 채택하고 있다.<sup>162)</sup> 첫번째 항목에서는 주로 선과 악이라는 두신론과 연결된 두원리론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sup>163)</sup> 다섯번째 항목에서는, 그들이 구약성경을 부인하고 신약성경에서는 일부분만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sup>164)</sup> 또

159) Lambert, 1977, pp.1—22; 119—128.

160) MPG, CIV.

161) Runciman, p.181.

162) MPG, CIV, 1254—1258.

163) MPG, CIV, 1254: apud illos axioma principia duo confiteri, melum scilicet Deum et bonum.

164) MPG, CIV, 1255: Quintum est, quod nullum recipiunt Veteris Testamenti librum, deceptores ac fures prophetas appellantes, sicut posate proprio in loco accuratius ostendetur; nec nisi snacta quatuor Evangelia, et apostoli Pauli quatuordecim Epistolas, Jacobi catholicam, Joannis tres, sancti Judal Catholicam, et apostolorum Actus uti sunt apud nos sine ullius verbi mutatione.

한 그리스도께서 외견상 돌아가셨던 십자가에 대해서 별 신뢰할만한 가치를 두지 않는 다섯번째 항목에서는 가현설적인 그리스도 개념이 엿보인다.<sup>165)</sup>

12세기 무렵까지 수 세기를 걸쳐 바울주의자들이 아르메니아(Armenia)로부터 시작해서 동로마 제국(the Eastern Byzantine Empire)과 발칸반도로 까지 확산되는 동안, 대략 10세 경에 불가리아(Bulgaria)에서는 보고밀파(Bogomils) 교도들이 출현하여 중세 이단종파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sup>166)</sup> 이제까지 전해 내려온 보고밀파에 대한 설명은 the Panopia Dogmatica of Euthymius Zigabenus<sup>167)</sup>와 보고밀파 거의 동시대 사람인 불가리아인 사제, 코스마스(Cosmas)에 의한 한 기록에서 나타난다. 이 두 기록에서는 보고밀파 이단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문헌상으로는 권위를 지니고 있다.<sup>168)</sup> 코스마스는 보고밀파 교도들을 구약성경이나 거부하는 단순한 이원론자들로 설명한다. 보고밀파 교도들은 사탄(the Devil)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고 물질세계는 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그리스도는 가현적 그리스도로서 외견상의 인간일 뿐이다.<sup>169)</sup> 비록 지가베누스(Zigabenus)가 코스마스의 설명과는 정반대로, 보고밀파 교도들은 절대적인 이원론자들이 아니고 구약성경 중 일부도 인정했음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들이 전체적으로 이원론으로 착색하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틀림이 없다. 보고밀파 교도들은 세르비아(Serbia), 보스니아(Bosnia), 달마티아(Dalmatia) 지역으로 점차 확산하였으며, 마침내는 서유럽(Western Europe)에까지 이르게 되었다.<sup>170)</sup> 13세기 초기 보고밀파 교도들은 성공리에 불가리아 제국 속으로 그들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으며, 보스니아에서는 그들의 종교가 국가종교가 되었다. 보스니아와 팔마티아(Polmatia)에서 보고밀파 교도들은

165) MPG, CIV, 1255.

166) Wakefield and Evans, 1969, pp.13—14.

167) MPG, CXXX.

168) Runciman, p.73.

169) Wakefield and Evans, p.15.

170) Wakefield and Evans, p.16.

일반적으로 파타린파(Patarines)라 불리웠고 똑같은 이원론을 주장하였다.<sup>171)</sup>

서방에서 눈에 띄는 이원론자들은 카타리파(the Cathars) 교도들이다. 그들은 십자군 전사들에 의해 전해진 보고밀파의 정신을 접함으로써 자극을 받았다.<sup>172)</sup> 보고밀파 교도들과 마찬가지로 카타리파교도들도 모든 물질세계의 창조를 사탄의 행위로 돌린다. 그들은 악에 대한 선의 절대적인 반대를 근거로 해서 두 원리론(two principles)을 주장한다. 13C세기 경 한 이탈리아의 카타리파 교도가 저술한 논문, *The Book of the Principles*에서 보면, 그 저자는 어떻게 하면 악의 존재를 하나님 존재와 화해시킬 수 있을까 라는 문제로 씨름하고 있다. 여기서 그 저자는 “신들(gods), 창조주들(creators), 피조물들의 절대적인 이원성과…… 악에 대한 선의 절대적인 반대를 주장함으로써…… 그리고 선(善)의 피조물들 가운데 자유의지의 존재를 부인함으로써”<sup>173)</sup> 이 문제를 풀고 있다. 카타리파 교도들은 하나님과 물질세계를 구별하고 이 둘 사이를 신적 존재라 할 수 있는 연쇄적인 eon 들로 매워 넣는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eon 들의 수장으로, 물질이 전적으로 악한 까닭에 그는 그의 화육(化肉)시에도 결코 물질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카타리파 신앙에서 의는 어찌됐든 그리스도가 인간일 수가 없다. 그는 오로지 의견상 인간의 형태로 존재할 뿐이다. Runciman 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대체로 카타리파 교도들은 가현실 주의자들이기가 쉽다. 신적인 eon 인 이 그리스도가 의견상으로만 인간의 형태를 띠고 있고, 의견상으로만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기란 간단한 것이다. 왜냐하면 물질이 전적으로 악하다면 의당 신적인 존재는 물질로 옷 입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sup>174)</sup> 카타리파 교도들은 창조주와 사탄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약성경을 무시해 버린다. 그들은 심지어 아브라함과 모세는 물론 구약성경의 다른 족장들까지도 사탄에게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

171) Wakefield and Evans, p. 16.

172) Wakefield and Evans, p. 27.

173) Wakefield and Evans, p. 511.

174) Runciman, p. 149.

함으로써 선지서들과 시편, 그리고 솔로몬의 다섯 책을 제외한 구약 성경 자체를 부정해 버렸다.<sup>175)</sup>

13세기, 도미니칸 수사요, 종교재판관인 Rainerius Sacconi 는 알바넨시안파(the Albanenses)의 교리들이 담긴 *Summa de Catharis et Catharis et Pauperibus de Ludgvo* 를 저술하였다. 이 문헌에 따르면 알바넨시안파 교도들도 카타리파 교도들과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다. 알바넨시안파 가운데에는 벨레스만자(Belesmanza) 그룹과 루기오의 요한(John of Lugio) 그룹이라는 두개의 그룹이 있었다. 이 중 전자의 그룹은 보다 강력한 이원론적 원리를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가현설을 지지하며, 구약성경을 거부하였다. 두원리론(two principles)에 대해서는 Rainerius 는 “영원부터 두 원리, 즉 선과 악이라는 두 원리가 존재하였다.”<sup>176)</sup> 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가현설 역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실제로 인간의 본성을 입지 않으셨다.…… 그는 실제로, 먹지도, 마시지도, 고난도 받지 않으셨고, 또한 죽지도, 땅에 묻히지도 않으셨으며, 실제로 부활하시지도 않으셨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의견상으로 나타났을 뿐이다.”<sup>177)</sup> 알바넨시안파 교도들은 또한 구약성경의 모든 성조(the father)들을 부인함으로써 구약성경을 인정하기를 꺼렸다.<sup>178)</sup>

알비젠시안파(the Albigenses) 교도들에게서도 카타리파 교도들의 특징들이 나타난다. 알비젠시안파 교도들의 교의에 관한 내용은(*Archivum fratrum praedicatorum* 책 속에서 Antoine Dondaine 이 쓴 “*Durand de Huesca et la polemique anti-cathare*” 필사본에서 나타난다.<sup>179)</sup> 역시 알비젠시안파 교도들도 “선하신 하나님(God)과 생소한 신(god) 등 두 신이 존재한다.”<sup>180)</sup> 고 주장한다. 구약성경 대해서는, 악한 신에 의해 모세 율법이 주어졌으므로 인정할만한 아무런 가

175) Runciman, pp. 150—151.

176) Summa of Rainerius 17, in Wakefield and Evans, p. 328.

177) Wakefield and Evans, p. 338.

178) Wakefield and Evans, p. 338.

179) Vol. XXIX(1959), pp. 268—271, cited in Wakefield and Evans, p. 231.

180) Wakefield and Evans, p. 231.

치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실제로 세상에 계시지 않았으며, 따라서 오직 그는 영적인 의미만으로 존재하였다.

이러한 알비젼시안 교도들의 세가지 특징들은 보드케르나이의 베드로(Peter of Vaux-de-Cermay)가 쓴 논문, *Historia Albigensis*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 논문의 제 1부 제10항에서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알비젼시안파 교의를 다루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항목에서는, “이 이단자들은 두 창조자(two creators) 즉 그들이 다정다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창조주와 보이는 세계의 창조주 혹은 악하신 하나님을 주장한다”<sup>181)</sup>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두 가지 다른 신관에 입각해서 구약성경을 거부한다고 이 항목에서는 기록하고 있다: “알비젼시안파 교도들은 신약성경을 다정다감하신 하나님에게서 기인한 것으로 여기며, 구약성경은 악하신 하나님에게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 그들은 신약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연유로 하여 수용할만한 가치가 있는 몇몇 구절들만을 제외하고, 전체 구약성경을 거부해버린다.”<sup>182)</sup> 그리스도의 가현설에 대해서 보드케르나이의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한다: “심히어 알비젼시안파 교도들은 그들의 비밀집회에서 조차, 이 땅의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여 예루살렘에서 못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는 악하다고 단언하며,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듯이 간음한 현장에서 잡힌 바로 그 여자이며 그리스도의 내면의 처라고 까지 주장한다. 이는 그들이 말하는 바 신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음식을 먹지도, 실체육의 모습으로도 계시지 않으셨으며, 바울이 말한 영적 의미 외에는 결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sup>183)</sup>

이제까지 우리는, 앞서 언급한 모든 중세 이단종파들이 마니교도들과 공통된 교리들을 갖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이처럼 중세 이단종파들 간에 보인 교리의 유사적인 면에서 마니교가 끼친 영향력과 그의 실재적인 흔적이 나타난 사실은, 기존의 역사적인 문헌들 뿐만 아니

라, 로마카톨릭 종교회의의 칙령에서도 입증해 주고 있다. 특별히 로마교회는 중세 이단들에게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마니교 교리를 거부하였다: “범신론, 유출사상(emanationism), 이원론, 그리고 참된 하나님 본성의 창조행위·세상의 기원·인간의 기원 등에 대한 마니교의 교리적 입장들.”<sup>184)</sup>

A.D. 561년 브라가(Braga)에서 개최된 로마교회의 종교회의는 한 광적인 마니교도 프리스킬리안(Priscillian)의 오류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로마교회는 마니교도들의 범신론, 창조론, 그리고 이원론 교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만약 인간의 영혼, 혹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실체로 이루어졌다고 믿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아나테마(anathema)가 있을찌어다.<sup>185)</sup>

만약 사탄이 하나님의 의해 피조된 제일의 선한 천사가 아니라, 또는 그 본질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 반대로 사탄이 흑암으로부터 왔고 그의 조물주는 없으며, 그 자신이 악의 시작이요 실체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아나테마(anathema)가 있을찌어다.<sup>186)</sup>

만약 프리스킬리안과 이교도들이 선포하는 것과 같이, 인간의 영혼이 예정된 어떤 운명의 표지(sign)와 연결됐다고 믿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아나테마(anathema)가 있을찌어다.<sup>187)</sup>

예컨대, 바울주의자, 보고밀파, 그리고 카타리파 등과 같은 중세 초기의 이단종파들에게서 마니교가 나타난지 반세기나 지난 이후, 마니교 정신은 발덴시안파(the Waldensian)와 알비젼시안파와 같은 이단

181) *Mistoria Albigensis* I. 10, in Wakefield and Evans, p. 237.

182) Wakefield and Evans, pp. 237—238.

183) Wakefield and Evans, p. 238.

184) TCT, p. 142.

185) TCT, 325(D 235).

186) TCT, 327(D 237).

187) TCT, 329(D 239).

종파들에게서도 나타났다. 1208년, 이노센트 13세는 마니교로 접철된 발덴시안파 이단의 오류에 맞서서 신앙고백을 하달하였다. 이 신앙고백에서는 신·구약성경의 통일성을 강조하면서 유일신론 사상을 강력하게 확인하였다.<sup>188)</sup> 1215년 제4차 라티란 종교회의에서도 이와 유사한 신앙고백을 채택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에 대한 영적 주의적 오류들과 마니교도적 조짐을 나타낸 알비젠시안파에 맞서서 대항하였다.<sup>189)</sup> 이 종교회의에서 채택한 신앙고백에서는 이단들이 주장하는 두 신 개념에 대항하여 “홀로 하나이신 삼위일체의 참 하나님” 존재를 강조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영적이교도 물질적인 우주는 그것이 천상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지상의 것이든간에 유일하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됐다는 사실도 제기되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이 바로 이 유일하신 한분 하나님인 것이다.<sup>190)</sup>

1442년 플로렌스 종교회의에서 공포한 칙령에서도 마니교 이단교리에 대항하기 위한 또 하나의 신앙고백이 채택되었다. 이 종교회의에서는 우주의 창조주로서 유일하신 하나님 존재와 신·구약의 성경의 통일성에 관한 사항이 분명히 확인되었다:

성(聖) 로마교회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유형·무형의 모든 만물들의 창조자이심을 굳게 믿노라.…… 또한 신·구약성경의 성인들이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한 것인 까닭에,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신·구약성경, 즉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과 복음서들의 저자이심을 고백하노라.…… 따라서 로마교회는 제일원인들을 가견물과 비가견물로 규정하고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을 다른 분으로 말하는 마니교도들의 어리석은 교리를 다시금 파문하노라.<sup>191)</sup>

이상에서 중세시대 이단들은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교의들을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역사적 문헌들과 로마교회의 종교회

188) TCT, 334(D 421).

189) TCT, p.146.

190) TCT, 335(D 428).

191) TCT, 343—344(D 706—707).

의 칙령들을 통해 그리 어렵지 않게 엿볼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교의들이 여러 면에서 마니교 교의와 유사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뚜렷히 찾아볼 수 있다. 비록 마니교도들과 이러한 중세시대 이단종파들 간에 직접적인 역사적 연관성을 입증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교리상에 나타난 여러 유사점들을 통해서 볼 때 이러한 이단종파들 속으로 마니교가 이전(移轉)되었음을 능히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초대교회 이단들과 중세시대 이단들과의 역사적인 관련성 여부 문제가 확인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다.

#### (4) 결 론

초대교회로부터 중세시대에 이르는 이단종파들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그들 상호간에 유사점들이 현저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신관, 그리스도관, 그리고 성경관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비록 다양한 이단종파들이 자기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교리들을 주장하고 있지만, 두원리론(two principles)이라는 이원론적 교리는 이들 모두에게 있어서 근본적으로 엿보이는 교리이다. 하나님에 대해 이들 모두는 선(善)과 악(惡)이라는 두 신(two gods)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후자의 신이 언제나 악한 물질인, 피조물들과 연관된 반면에, 선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영적 영역과 연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써 그리스도 역시 물질화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는 의견상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결코 인간이 되지 않았다. 신·구약성경 또한 이런 관점에서 조명된다. 창조주 하나님이 구약성경안에 등장하기 때문에 구약성경도 마찬가지로 악하며 사탄에 의해 오염됐다는 것이다. 한편, 신약성경은 선하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 까닭에 선한 것으로 간주한다.

초대교회 당시 영지주의자들과 마니교도들, 그리고 중세시대 카타리교도들과 같은 이단종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엿보이는 또 다른 개념이 범신론 사상이다. 그 가운데 카타리파 교도들에 대해서 Run-ciman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카타리파 교도들은 천계(天界)가 도처에 널려 있다는 범신론 사상의 숭배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 자체와 물질 세계 사이에 연쇄하는 eon 들을 배워넣고

는 모든 세계를 신(divinity)으로 가득차게 하였다. ……성령은 하나 됨으로부터 유출되었고…… 그의 아들, 또는 그리스도는 이러한 eon 들의 수장이며……”<sup>192)</sup> 광신성과 불멸성 역시 다양한 이단종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서 정통교회들에 의해서 공격받은 부분들이다.

다양한 이단종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교의들을 전부 다 찾아 내기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확인이 된 교리상의 유사점들만으로도 다양한 이단종파들을 한데 묶어놓기에 아주 충분하다. 이러한 사실이 바로 초대교회 이단들을 설명하면서, 칼빈 자신이 의도한 바이다. 칼빈은 이러한 초대교회 이단들을 더듬어 나가는 가운데 리베르틴 운동의 출현배경을 제시한다. 그럼으로써 리베르틴파는 초대교회 이단들 뿐만 아니라 리베르틴파의 교리들을 밝혀주는 교회사의 한 위치를 점유하게 되는 것이다. <계속>

192) Runciman, p. 149.

## 再洗禮派 運動의 起源

洪 致 模  
<서양사>

### 머리말

筆者는 오래 전 宗教改革史 研究의 한 分野로서 再洗禮派(Anabaptist)에 관하여 약간 언급한 일이 있다.<sup>1)</sup>

지난 3月 29日부터 4月 1日까지 미국西南侵禮敎 신학대학에서 모였던 “신도들의 교회회의”(Believer's Church Conference)는 再洗禮派 學會의 모임이었다. 이 모임에는 再洗禮派에 속해 있는 학자들이 거의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파에 속해 있으면서 이 분야를 研究하고 있는 학자들도 다수 참가하였다.

우선 再洗禮派에 속해 있으면서 이미 作故한 John Horsch, Robert Friedman, Harold S. Bender 등을 계승하면서 지금도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John H. Yoder 敎授를 비롯하여 平生을 Harvard 대학에서 再洗禮派의 역사를 연구하다가 은퇴한 George H. Williams 교수, 그리고 감리교 신자로서 Temple 대학의 대학원장을 역임한 Franklin H. Littel 등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각각 論文을 발표함으로써 그들의 노익장을 과시하였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한 少將學者가 발표한 論文의 제목은 과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論議의 초점이 되어왔던 再洗禮派의 기원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것을 계기로 再洗禮派의 기원에 관해서 여러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발판으로 삼고

1) 洪致模, 宗教改革史(聖光文化社, 1989, 제 7판), pp. 120—129.

洪致模, 北歐文藝復興과 宗教改革(聖光文化社, 1984), pp. 229—252.